AI 선생도
오답 노트를 씁니다

법 시험은 한 글자로 갈립니다. 그래서 AI 선생이 **틀리는 방식부터 연구**하고, 책을 펴서 확인하지 않은 근거는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

① 책을 안 폈으면 말하지 마

조문·판례·쪽수는 그 답변 안에서 책을 펴 글자 단위로 대조한 것만

② 선생도 자기가 틀리는 법을 외운다

AI가 법 문제에서 틀리는 방식 12가지를 분류해, 답하기 직전 스스로 점검

③ "특허도 마찬가지"가 제일 위험하다

특허법·상표법에서 이름은 같은데 결론이 갈리는 자리

④ 선생과 학생이 한 노트를 쓴다

제 오답도 선생의 오답도 네 줄로 같은 노트에. 같은 실수엔 "또"

공부 지적 약 200번이 과목별 오답 노트 약 13만 자가 되었습니다. **이 별첨도 Claude로 만들었습니다.**

AI 해설은 친절했지만,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

AI의 답

"지출**액**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"

조문 원문 (민법 제688조 제1항)

"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"

1,589

공부로 보낸 메시지(개)

≈200

그중 "틀렸다" 지적(번)

0

AI가 기억한 내 약점
(대화를 새로 열면)

고민: AI를 해설자가 아니라, **내가 어디서 왜 틀리는지 기억하고 자기가 틀리는 방식까지 아는 선생**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.

책을 펴지 않은 근거는 말하지 못합니다

1

조문·판례·쪽수를 쓰려 한다

기억으로 적고 싶은 순간

→

2

그 답변 안에서 책을 편다

앞에서 봤다는 기억은 불인정

→

3

글자 단위로 대조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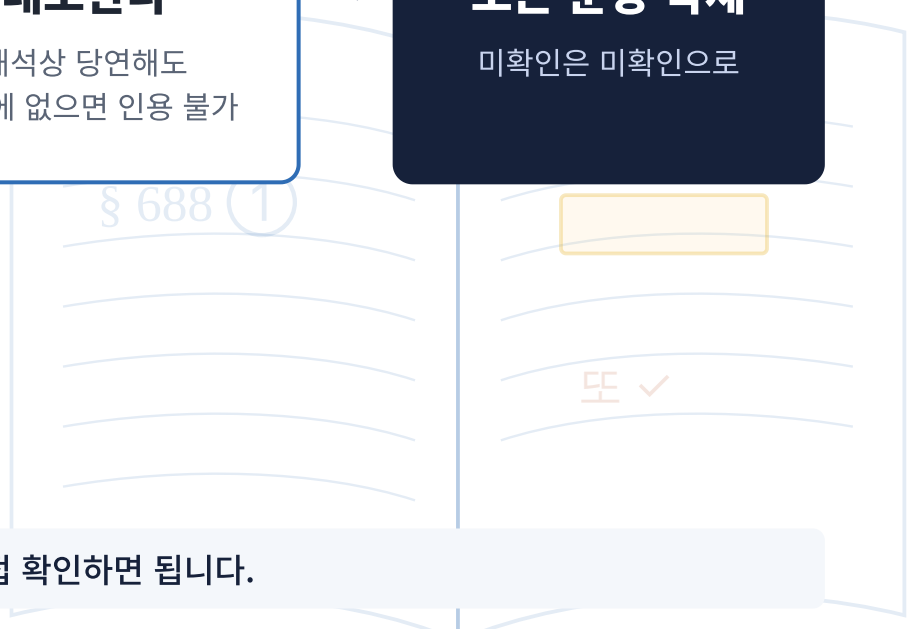
해석상 당연해도
원문에 없으면 인용 불가

→

통과 못 하면

"책을 안 펴 봤음" 또는 문장 삭제

미확인은 미확인으로



"지출액" 사건 뒤에 생긴 관문입니다. 이제 저는 **"책을 안 펴 봤음"이 붙은 곳만**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.

AI가 법 문제에서 틀리는 방식을 12가지로 분류했습니다

근거 안 펴 봄
쪽수·조문을 적었는데 그 답변에서 안 열었다

근거 부풀리기
그 쪽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다

섞인 표
결론이 반대인 근거를 한 줄에 놓았다

짜깁기 결론
판례를 안 찾고 두 근거를 이어 붙였다

조건 떼기
"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"을 빼고 옮겼다

거꾸로 읽기
지문을 반대로 읽고 판정했다

없는 단서 끌어오기
두 답을 맞추려 지문에 없는 조건을 붙였다

용어 바꿔치기
보정↔정정처럼 비슷한 다른 말

번호 영역 혼동
다른 권·영역의 번호로 착각

절반만 맞는 묶음
성질 다른 둘을 "모두"로 묶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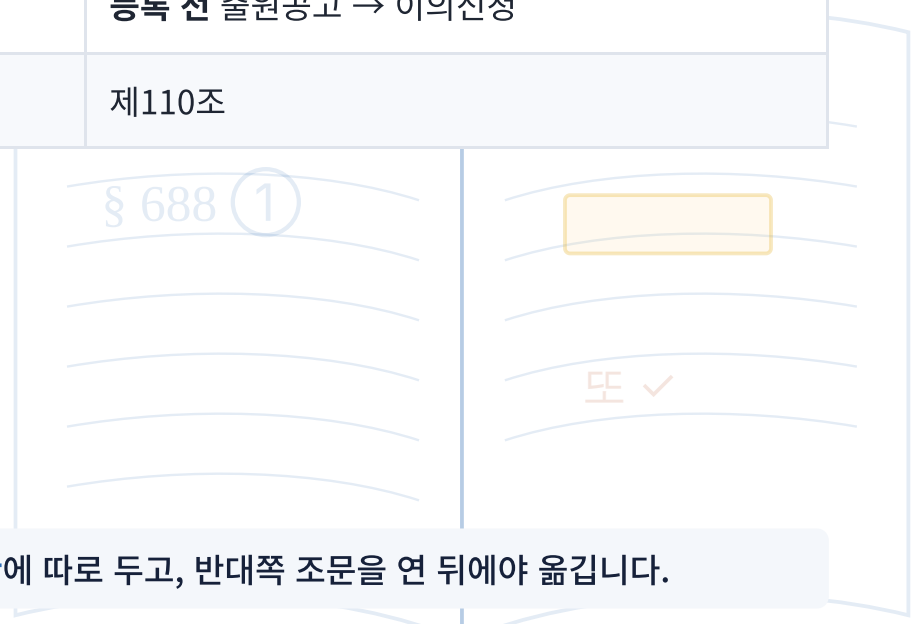
"마찬가지"
두 법을 원문 대조 없이 같다고 했다

정답지 맹종
조문 안 보고 문제집 답만 따랐다

AI는 답을 내기 직전에 **이 12가지로 자기 답을 점검**합니다. 이 표현이 나오려는 순간이 곧 경고입니다.

"특허도 마찬가지"라고 쓰려는 순간, 지도를 엽니다

같은 이름의 제도	특허법	상표법
조약우선권 출원기간	최초 출원일부터 **1년** (제54조②)	최초 출원일부터 **6개월** (제46조②)
공고 시점	**등록 후** 등록공고	**등록 전** 출원공고 → 이의신청
손해배상 조문	제128조	제110조



두 법 모두 원문으로 확인된 것만 지도에 올립니다. **한쪽만 확인된 것은 "미확인" 칸**에 따로 두고, 반대쪽 조문을 연 뒤에야 옮깁니다.

출처: 특허법·상표법 조문(국가법령정보센터). 공개된 법 조문만 옮겼습니다.

같은 버릇이 세 번 나오자, 노트를 늘리지 않고 고쳤습니다

버릇: 두 문제의 답이 어긋나 보이면, AI가 지문에 없는 조건을 붙여 억지로 맞췄습니다.

1

처음

"지문에 없는 조건을 붙이지 말 것" 한 줄

2

9월 19일 · "또"

줄이 있는데 안 걸렸다
→ 놓친 모양까지 넓힘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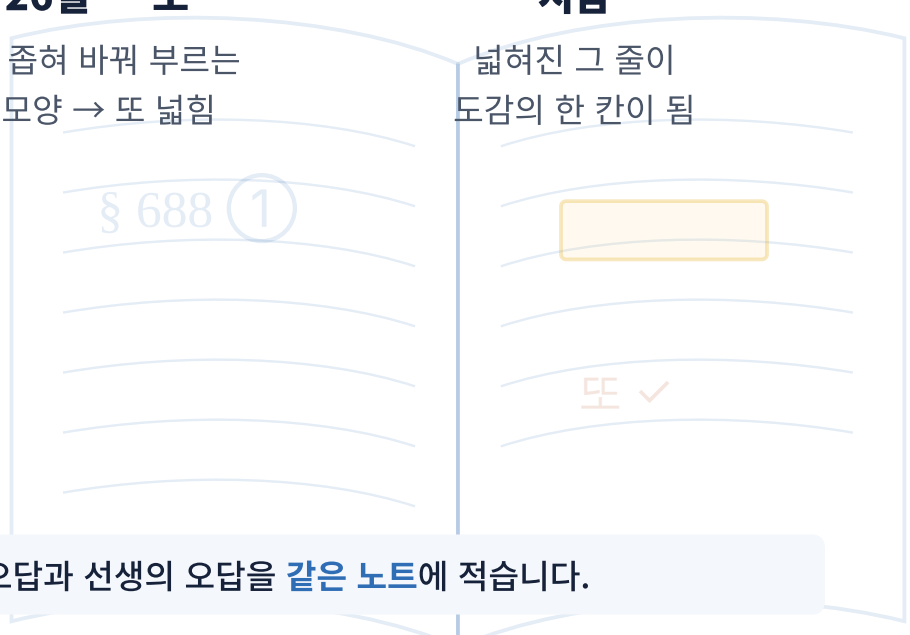
9월 26일 · "또"

범위를 좁혀 바꿔 부르는 다른 모양 → 또 넓힘

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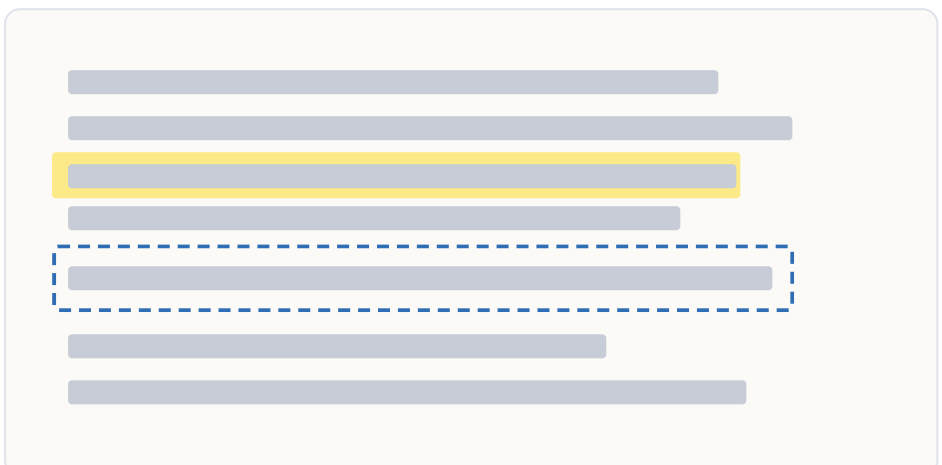
지금

넓혀진 그 줄이 도감의 한 칸이 됨



질문이 바뀝니다. "무엇을 더 적을까"가 아니라 **"노트에 있는데 왜 안 걸렸나"**. 제 오답과 선생의 오답을 **같은 노트**에 적습니다.

컴퓨터가 글자를 못 읽는 교재라, 글줄의 위치를 찾게 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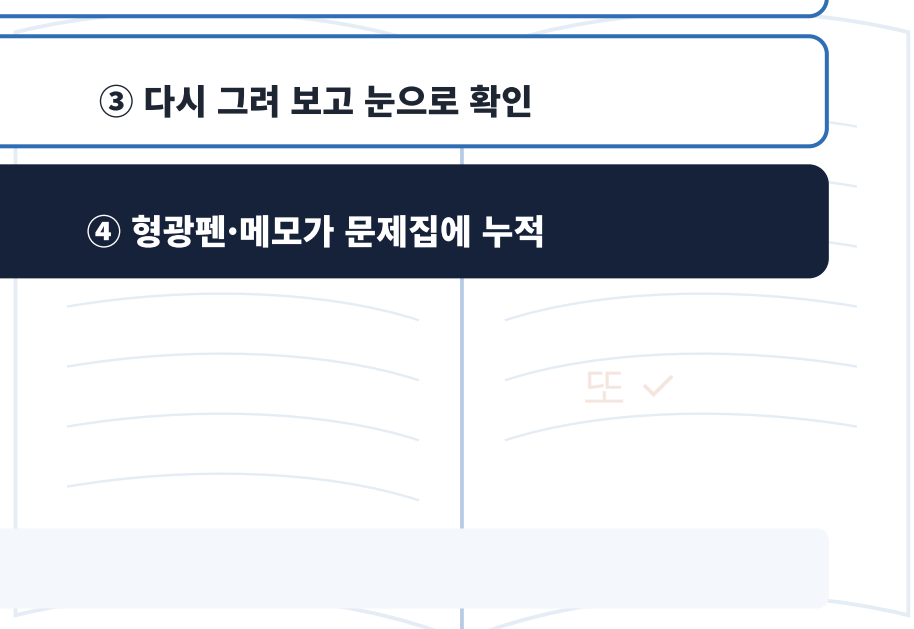


① 페이지 그림에서 글줄 위치 검출

② 물어본 문제의 칠할 줄을 골라 좌표로

③ 다시 그려 보고 눈으로 확인

④ 형광펜·메모가 문제집에 누적



시험 전날 문제집을 넘기면 제가 헷갈렸던 문제만 형광펜으로 눈에 들어옵니다.

모식도 — 실제 교재 화면은 저작권 때문에 싣지 않았습니다.

지적이 노트가 되고, 노트는 실제로 틀린 데서만 고쳐졌습니다

1,589
공부로 보낸 메시지

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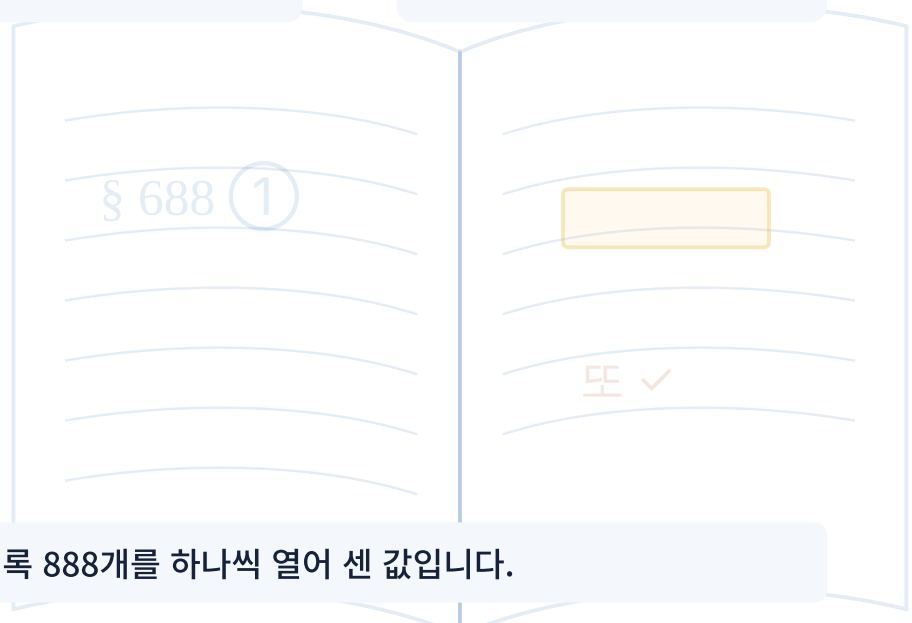
≈200
"틀렸다" 지적

→

13만
과목별 오답 노트(자)

→

104
노트를 고친 이력



제가 틀린 것과 AI가 틀린 것을 가리지 않고 같은 노트에 적었습니다. 숫자는 대화 기록 888개를 하나씩 열어 센 값입니다.

AI가 가르치되, 생각과 판단은 제가 합니다

선생의 말도 검증 대상입니다

조문·판례·쪽수는 책을 펴서 확인한 것만. 못 폈으면 "책을 안 펴 봤음". 맞고 틀림의 최종 판단은 제가 교재 해설과 대조해서 합니다.

생각은 학생이 합니다

AI가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"너는 여기서 이렇게 틀린다"는 지적. 고치는 것은 제 몫이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.

선생도 성적표가 있습니다

AI가 틀린 것도 제 오답과 같은 노트에. 선생을 얼마나 믿을지 권위가 아니라 기록으로 정합니다.

교재는 제 책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

교재는 제가 산 것을 제 컴퓨터 안에서 제 공부에만. 이 자료와 영상에도 교재 문장은 없고, 인용은 공개된 법 조문뿐입니다.



AI를 선생으로 쓰는 방법이라, **AI가 제 생각을 대신하거나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게**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

규칙은 여섯 줄, 어느 AI에서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

어느 AI에서나 — 프로젝트 지침 칸에 붙여 넣을 여섯 줄

1. 답하기 전에 노트을 읽고, 이 문제와 닮은 과거 실수가 있으면 먼저 짚는다.
2. 조문·판례·쪽수는 내가 준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말한다. 못 했으면 "(책을 안 펴 봤음)"을 붙인다.
3. 문제 지문은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옮긴 뒤 판단한다.
4. 내가 틀리거나 네가 틀리면 "틀린 답 / 정답 / 왜 / 다음엔" 네 줄로 노트에 넣을 문장을 써 준다.
5. 같은 실수가 다시 나오면 그 줄 앞에 "또"를 붙이고, 노트가 왜 안 걸렸는지 말한 뒤 그 줄을 고친다.
6. 틀린 번호를 몰아서 주고 "11111"이라고 하면, 함께 틀리게 만든 내 버릇 하나를 표 한 장으로 설득한다.

Claude에서는 더 편하다

스킬 — AI가 오답 노트 파일을 직접 고친다

내 컴퓨터 연결 — AI가 내 교재 PDF를 직접 펴서 확인한다

작은 프로그램 — 물어본 문제만 문제집에 형광펜으로

다른 AI에서는 네 줄을 사람이 노트에 옮겨 붙이면 된다



이 별첨과 신청서, 소개 영상은 **모두 Claude와 대화하며 만들었습니다**(영상의 실사풍 장면은 Google Flow의 Veo로 만든 AI 영상이고, 내레이션은 AI 음성(Google Gemini)입니다). 이 응모 자료 자체가 이 사례의 결과물입니다.